

연 중 제 28 주 일

기도서 P. 454 C해

●독(열 왕 후 5, 14-17절)
2독(디 모 후 2, 8-13절)
복음(루 가 17, 11-19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강론□



감사하는 마음

김 종 길 신부

나는 몇년 전에 전주 성모병원에서 노로 결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은근히 걱정을 하였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 죽지는 않을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진실된 기도였다. 그리고 결심도 대단했다. 마취담당.수녀님이 마취를 시키면서 하나, 둘... 열까지 세라고 하였다. 나는 여섯인가 일곱을 셀 기억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다. 나는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분명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지금 반성한다. 나는 그때 주님께 감사드린 것이 순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수술을 집도한 원장님, 외과 과장님께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병문안을 와서 위로해 준 많은 분들에게도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중병을 앓던 사람이 완쾌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드리는 마음, 중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드리는 마음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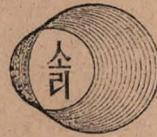
나는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왔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주님과 이웃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깊은 시련을 당할 때 평소에 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나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이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미사의 봉헌시간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그 일부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체성사를 통하여 감사를 느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탄뎀 흘러 일하며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물질로 표시 할 수도 있고, 친절과 봉사로 표시할 수도 있고, 기도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신앙생활이 감사대신 원망과 질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생활을 하자!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주교단 담화문

-시국에 대한

교회내의 일부 움직임에 대한

우리 주교들은 근년에 우리나라의 시국 문제에 관하여 일부 신교사들이 비판적 견해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다시 일부 한국 신부들이 비판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대립적 상황이 혹시라도 점차 양극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이다.

교회내에서도 시대의 과도적 상황으로 시국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일치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형제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견해의 차이는 있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형제적 사랑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다. 따라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유언물을 통해 형제적 사랑을 해치며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할 것을 요망한다.

「특히 사제들은 주교들과 교황의 지도를 받아 분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전인류를 하느님 가정의 일치에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교회헌장 28)

1977년 9월 23일 한국 주교단

이상은 주교단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발표한 담화문이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교회안의 내적일치"를 호소하는 것이다. '형제적 사랑을 해치거나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다.'

사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에페 소 4장 15절)한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과 갈아서 상처를 입힐 뿐이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숲 정 이 산 책

숲 정 이 산 책

순교자 기념판이
있어야 할 텐데...



파떠마의 성모

—인류의 구원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라!

금년은 파떠마에서의 성모 발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10월 13일은 그 마지막 발현 날이다. 이미 1930년 10월 13일 다·실바 주교는 전체 폴류칼 주교단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떠마에서 일어난 일을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1942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공식적으로 인류를 하자없으신 성모 성심께 성대히 봉헌하였다.

루르드에서나 파떠마에서나 성모님의 메시지는 한결같다. —“죄인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라”, “보속하라”,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매일 목주의 기도를 바쳐라”

이 10월에 세계평화와 자신과 죄인의 회개, 특별히 중국의 통일,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목주의 기도를 바치자.

□ 파 떠 마

파떠마는 폴류칼의 수도 리스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로서 1917년 전까지만해도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곳이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순진하게 양치는 세 어린이 즉 루치아, 프란치스꼬, 히야친따에게 발현하시어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부터 금세기 위한 영광스러운 천상 모후의 표징이 된 동시에 승리의 표징이 된 곳이다.

□ 발 현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무 예고도 없이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다. 1915년 한 천사가 양치는 세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평화의 천사이니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자”고 말할 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오! 주여 당신을 흠숭하고 믿사오며 바라고 사랑하오니, 당신을 믿지도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바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용서를 청하십시오.」

□ 첫 발현 (1917년 5월 13일)

1917년 5월 13일 정오, 성모 마리아께서 「나는 천상에서 왔노라.」, 「나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매일 13일,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너희들과 만나자고 말하러 왔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 주의 마음을 상해드리지는 온갖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어떠한 고통도 모두 즐겨 받기 원하느냐?」

「세계평화와 가증스러운 전쟁 (=제1차 대전을 말함)이

끝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매일 목주의 기도를 바쳐라.」고 말씀하셨다.

■ 둘째 발현 (6월 13일)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나의 하자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그들의 영혼은 하느님 어좌를 장식하는 꽃처럼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라. 나는 결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티없는 성심은 너의 안식처가 될 것이며 너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셋째 발현 (7월 13일)

「전쟁이 끝나기를 비는 마음으로 목주의 기도를 바쳐라. 복되신 동정녀의 간여로서만 인류에게 평화의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은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의 참상이다. 하느님은 그와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티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을 전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바를 실천하면 많은 영혼은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며 세계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죄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더 큰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다시 소련을 하자없는 성심께 봉헌할 것과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할 것을 요청한다.

나의 이 요청을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면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들이 회개할 것이며 지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

「너희는 목주의 기도를 바칠 때 매단 끝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외워라.

“오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며,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제일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 네째 발현 (8월 13일)

「매일 목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원한다.」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기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마지막 발현 (10월 13일)

「나는 매괴의 성모이다. 사람들은 매일 목주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주께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우리 주의 마음을 크게 상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의 빛을 잃게하고 15분간 태양이 움직이는 기적을 행하셨다.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운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남원지방 각개소 연락하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군산 연락소 전화 3032

한 등 압 (모이세)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주 특약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④ 4 4 5 1 동년제과 분점앞



□ 성서교실 ② □



베드로의 첫째 편지

범 영 배 부제

저자와 수신인 : 서간 서문에 사도인 베드로가 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1,1), 저자는 자기가 원로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5,1).

그러나 학자들은 베드로가 친히 적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 편지의 회람어 문제가 훌륭하다는 것이다. 원래 베드로는 회람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마르코를 통역관으로 데리고 있었다. 또한 이 서간의 사상이 바울로의 사상과 흡사하다 (예 : 2,24 과 로마3,24 ; 3,18 ; 6,10 ; 2,13-17 ; 13,1-7.....).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친히 적지 아니하고 바울로의 친구인 실바노에게 위촉했는데 (5,12) 위촉받은 실바노는 자유로 이 서간을 썼다고 생각한다.

수신인은 서문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Diaspora 신자라고 소개한다 (1,1). 디아스포라 (Diaspora)란 원래 외교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지만, 이 서간에서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 아닌 외교인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무지" (1,4), "허무맹랑한 생활" (1,8) 등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저술 장소와 시기 및 동기 : 저술 장소는 서간에서 바빌론이라고 했는데 (5,13), 여기서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옛 바빌론을 뜻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뜻한다. 옛바빌론은 BC 7C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였지만, BC 1C부터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빌론이라 불렀다 (에스트라 4서3,1 묵시 17,5).

저술 시기에 있어, 혹자는 베드로가 치명 (AD 64 혹은 65년)한 뒤에 저술되었다고 하지만 베드로의 생존시인 AD 65년 이전에 저술되었다고 보고 있다.

저술 동기는 박해가 가까워지는 어수선한 때에 신입 신자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용 : 신자들의 성세를 통한 제생을 논하고, 또한 이 성세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내린 선물인 동시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자세히 논하고 있다 (1,3-2,3). 새 신자가 성덕에 나갈것을 권고하며 (1,13-2,10), 여러 신분을 가진 신자들의 신분상의 본분을 열거하고 (2,11-5,11) 있다.

정치적 권위의 근거는 하느님의 창조지지에 있고, 정치적 권위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질서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위의 목적은 질서 추구에 있다 (2,13, -17)라고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 서간의 사상을 종합한다면, 첫째,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의 위협을 받지만 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다. 둘째, 신앙생활은 희망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이 희망은 상상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이요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따라서 우리를 적극적 생활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므로 신자는 일상 생활로서 그 신앙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심이 (219) 김병오



□ 아동복 전문 □

까치의 집

이 윤례 (테레사)

남중학교 정문 옆
(남노파출소 ↔ 동부시장)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양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 (아오스딩)

전화 ② 1665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김순성씨 장남 김 태우 (알퐁소) 군
황연주씨 장녀 황 진숙 (안젤라) 양

1977년 10월 9일, 12시 중앙성당
서 용 복 신부 주례

□ 타 자수리, 취업알선, 매월집정 □

뉴-타자 학원

원장 신 송 무 (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 (가이다노)

전주시 중양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 (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 공지 사항

1. 정양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송남호(요셉)신부님께서 건강의 악화로 지난 4일 주교님으로부터 병자의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김영구(베드로)신부님께서서는 지난 9월 건강상태가 나빠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신부님들, 특히 정양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순교자 현양 대회 결산보고

※김후영(도비아) 씨께서 제대 준비를 위한 일체의 장비(반넬, 기둥, 각목등)를 무료로 대여해 주셨습니다. ※ 신흥공업사 이교성, 김화자(글라라) 내외분께서 위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료로 대여 해주셨습니다.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현금 수입 총액 425,942원 지출 총액 164,880원
- 지출 내역...제대 준비 55,980원, 인쇄비 14,000원, 시상비 7,900원, 기념볼펜 79,800원, 잡비 7,200원
- 잔액은 전주 지방의 순교성지 유인물(천연색)제작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3. 4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16일, 해성학교 운동장)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꾸리아 월례회: 9일 오후 2시, 강당
 2. 로사리오(목주)의 기도: 10월중 매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3.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
 4.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16일 오전 8시부터 해성학교 운동장에서
 5. J.O.C정기총회: 16일 오전 9시부터, 강당
- 지난주 봉헌금: 106,950원

추진위원-조성호, 유기순, 김수점, 박상기, 유덕열 허순덕, 봉영숙, 이호재, 송영자, 유순자, 최복주 모임-10일<월>밤 8시 반에 사제관에서

4.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김현경택

5. 주일학교 체육대회 (다음주일)에 응원과 협조를... 군인주일 봉헌금: 38,26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선교주일 미사후 월례회
 2. 매회 가림: 10시 미사
 3. 성모회 간부회: 12일 오후 2시
 4. 주일학교 체육대회: 16일, 해성학교
 5. 저녁 미사시간 변경: 오후 7시반
 6. 신용조합 월례회: 10일 오후 8시, 전조합원 꼭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35,335원

(노송동) 전화 370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노송 신우회 월례회: 오늘 오후 8시반, 꼭 참석바람
 2. 사도회 소풍: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원들은(구역 포함) 12시까지 도시락 지참하시고 송광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주일학교(교리-〈토〉오후 3시, 미사-〈토〉오후 4시)에 가정의 아동들 한명도 빠짐없이 보내세요
- 군인 주일 헌금: 51,165원 감사합니다
- 축결혼! 16일 정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신랑 임영빈 군, 신부 이송임 양

(숲정리)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공동체 성가 연습: 매주일 저녁미사 후 합창단원님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중고 학생 미사: 〈토〉오후, 꼭 나오세요
 3. 매월 반상회 일정 안내: 진북 1동 1반(7일), 진북 2동 1반(1일), 2반(3일), 3반(5일), 4반(15일), 5반(9일), 6반(11일), 7반(13일), 서신동 1반(17일), 2반(19일), 금암동 1반(21일), 2반(23일), 태평동 1반(25일)
 4. 애령회 소식, 회사 감사합니다 이상용(1천원), 교복숙(1만원)
- 지난주 봉헌금: 81,18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 분당 낙성식에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청년, 학생 월례회: 오늘 미사후
 2. 미사시간을 엄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88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1반2일, 매일 오후 8시) 4일-신부님택, 5일-사무장택, 6일-사도회장택, 7일-박흥기택, 8일, -이정우택 9일-윤화복택, 10일-김옥균택, 11일-이인자택, 12일-유덕일택, 13일-김봉근택, 14일-정순신택, 15일-허재석택, 16일-신영애택(모실장소와 초, 꽃 준비 하세요)
 2. 사도회 확대회 성공리에 마침 (4일) 입원 11명 구역장 9명, 반회장 21명, 감사 2명, 고문11명, 신심단체장 6명, 제 60명중 56명 출석
- ※ 많은 협조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3. 복자 유물 전시관 마련키로 결의, 강당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새성당 미사: 13일<목>오후 4시 파티마 성모께서 60년전 마지막 발원하신 날입니다.
 2.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를...
 3. 어른남녀교리: 〈금〉밤 8시, 본당 사무실
 4. 자모회, 장우회, 성가정회<월>
 5. 학생 미사시간 변경: 주일 오전 9시
 6. 10월중 성지(미리내, 자연농원)순례에 신청바랍니다
- 새성당 신입헌금 계속 신입 바랍니다
- 신입 총액 30,79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11,290원